

Snyder의 희망척도 한국 번역판의 타당화 연구*

최유희*

이희경

이동귀

가톨릭대학교

연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희망척도(Dispositional Hope Scale : DHS)의 한국판(K-DHS)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237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희망, 자기효능감, 낙관성, 문제해결평가, 정적 및 부적 정서, 무망감, 사회적 바람직성, 심리적 안녕감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Snyder 등(1991)이 제안한 2요인구조와는 달리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 대학생 표본에서는 단일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분석 결과, K-DHS의 만족스러운 신뢰도 수준이 확인되었다. 타당도 검증에서, K-DHS가 자기효능감, 낙관성, 정적 정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비효과적인 문제해결, 부적 정서, 무망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수렴 및 공준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K-DHS가 사회적 바람직성과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을 보였고,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의 설명력을 넘어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데 있어 고유변량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끝으로, 희망의 잠재적 구조에 대한 한국과 미국 간의 문화 차이의 가능성과 K-DHS의 활용성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희망, 희망척도, 신뢰도, 타당도, 긍정심리학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심리학은 주로 인간의 기능에 대해 질병 모델에 근거하여 인간의 결함, 문제를 평가하고 치료하는데 집중해 왔다. 이렇게 인간의 부정적인 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 온 그동안의 심리학에 대한 반성으로 긍정심리학이 출현했고(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긍정심리학의 목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문제나 결함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원과 강점의 개발을 통해 최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차 연구에 있어서도, Snyder와 McCullough(2000)는 인간의 부정적인 특질(예, 우울, 분노, 공격성, 무망감)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특질(예, 희망, 낙관성, 영성 등)의 평가를 위해 견고한 측정 도구와 기술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 본 논문은 이희경의 지도하에 최유희가 쓴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하였으며, 본 논문의 일부 연구결과는 제 116차 미국심리학회 연차대회(2008년 8월, Boston)에서 포스터로 발표될 예정이다.

* 교신저자 : 최유희, (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전화 : (02) 705-8211, Email : yuhee9999@naver.com

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격특질은 스트레스와 같은 삶의 위협요소의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는데(Masten & Coatsworth, 1998; Rutter, 1994), 이 중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 바로 희망(hope)이다. 희망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서구에서 희망의 정의를 옥스퍼드 사전에서 살펴보면, 희망은 ‘어떤 특정한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담은 감정’(http://www.oed.com)이며, 한국에서 희망은 일반적으로 ‘앞일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람, 그리고 앞으로 잘될 수 있는 가능성’(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08_new/index.jsp)으로 정의된다. 이들 정의는 주로 희망의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데 반해, 지금까지 희망 개념에 대해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의는 Snyder와 그의 동료들이 사용한 정의로, 희망을 하나의 기질로 보고 특히 희망의 인지적인 측면과 목표추구 특징을 강조한 것이다. 예를 들어, Snyder, LaPointe, Crowson과 Early(1998)는 희망을 두 개의 차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로사고(pathway thought)로 이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경로를 찾아내고 활용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도사고(agency thought)로 ‘목표 달성을 위해 이런 경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Snyder와 동료들의 희망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희망을 하나의 기질로 가정한다.¹⁾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희망은 심리적 안녕, 신체적 건강, 학업수행, 운동수행, 심리치료 및 상담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희망은 학업성취(Snyder et al., 1991) 및 운동수행(Curry & Snyder, 2000), 적응적 대처방식의 사용(Taylor & Armour, 1996), 유연한 긍정적 사고(Snyder et al., 1996; Snyder & McCullough,

2000), 긍정적 정서(Snyder et al., 1996)와 정적으로 연합된다. 또한 희망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타인들과 강한 애착을 형성하며(Snyder, Cheavens, & Sympson, 1997), 신체적 고통을 더 잘 인내하고(Snyder, Odle, & Hackman, 1999; Snyder et al., 2001),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도 더 빠른 회복을 보인다(Ong, Edwards, & Bergeman, 2006). 반면, 희망이 낮은 사람들은 친밀한 대인관계를 두려워하고(Thompson et al., 2002), 스트레스에 대해 반추하는 경향이 있으며, 마술적 탈출 환상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Michael, 2000; Snyder, 1999). 요컨대,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희망이 변화를 촉진시키고 심리적·신체적 건강의 증진 등과 같은 긍정적 결과들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희망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배경에는 Snyder와 동료들(Snyder et al., 1991)이 제시한 희망이론과 그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희망척도가 있다. 이들의 희망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목표지향적이라는 가정으로 시작한다. 즉, 희망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찾아내고, 이러한 경로를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를 생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nyder, 1994). 앞서 언급한 것처럼, 희망은 경로사고와 주도사고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먼저 경로사고는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 가능한 방법들과 대안들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지각된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라는 목표를 위한 경로를 찾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언어를 반영한다(예, “나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Snyder & LaPointe et al., 1998). 주도사고는 희망의 동기적 요소로서, 목표에 이르기 위해 자신의 경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지각이다. 이것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려는 인지적인 의지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희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는 자기-언어를 사용한다(예, “나는 포기하지 않겠어.” “나는 열심히 할거야.”; Snyder & LaPoint et al., 1998). 이러한 주도사고는 특히 목표추구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적절한 대안경로를 만들어내려는 동기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

Snyder 등의 희망이론에서 정서는 목표관련행동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결과 혹은 부산물이다. 즉, 긍정적 정서

1) 본 연구에서 Snyder 등의 희망개념에 바탕을 두었다는 사실이 ‘희망은 기질이다’라고 결론내리고 있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서 희망을 기질이 아닌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신념으로 정의하거나 희망의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한 정의에 바탕을 두고 연구할 수도 있다. 실제로 기질적 희망척도 뿐 아니라 상태적 희망척도(State Hope Scale, Snyder, & Sympson et al., 1996)가 개발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목적이 희망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nyder 등의 기질적 희망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한 후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는 목표추구의 성공을 지각할 때 나타나고, 부정적 정서는 실패를 지각할 때 나타난다. 이러한 희망의 작동과정을 설명한 것이 그림 1(Snyder, 2002)이다. 그림 1을 보면, 가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목표지향적 사고가 시간순서에 따라 전개된다. 가장 왼쪽을 보면, 경로사고와 주도사고는 어린 시절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되며 이러한 사고들은 목표추구 과정에서 일련의 정서들을 수반한다. 즉, 희망이 높은 사람들은 목표추구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적극적인 감정을 지니지만, 희망이 낮은 사람들은 목표를 추구하는 노력에 대해 부정적, 수동적인 감정을 일으킨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사건 전단계의 분석에서 결과 가치의 평가가 일어나는데, 목표추구의 결과가 정신적 에너지를 계속 투여할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면 사건 연속단계로 이동한다. 그 과정에서 경로사고와 주도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앞으로의 잠재적 결과가 인지적 과정을 계속할 만큼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면 접점을 점검한다. 목표추구가 진행되면서 개인은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는데 희망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굴복하고 목표에서 벗어날 여지가 많다. 또한 그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가 발생하여 그들의 희망사고에 다시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희망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하나의 도전으로 여기고 대안적인 경로들을 만들어 내며 그 경로들을 사용하기 위한 동기를 활성화시키면서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한다(Snyder et al., 1991). 그 과정에서 일어난 긍정적 감정들은 그들의 희망적 사고를 더욱 강화시킨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개인은 목표추구에 대해 성공(또는 실패)에 대한 지각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지각과 연합된 정서들은 목표추구과정에서 다시 순환될 수 있다. 대부분의 정서는 이러한 목표추구 과정의 맥락 안에서 흐르지만, 때때로 목표추구의 흐름 밖에서 일어나는 뜻밖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서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런 정서들은 기존의 목표추구 흐름에 재빠르게 통합된다. 이처럼, 희망이론은 개인의 목표추구 성공에 기여하는 피드포워드, 피드백 정서를 가진 기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희망이론은 시간 순서에서의 다양한 시점에서 피드백에 반응하는 상호관계적인 목표지향적 사고체계를 수반한다(Snyder, 2002). 이러한 희망이론에 근거하여 Snyder 등(1991)은 희망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Disposi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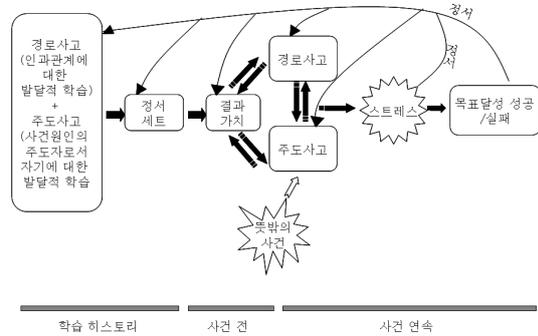


그림 1. 희망이론의 피드포워드와 피드백 모델(Snyder, 2002)

Hope Scale : DHS)를 개발하였고, 서구의 여러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았다(예, Snyder et al., 1991; Babyak, Snyder, & Yoshinobu, 1993). 그 결과 많은 연구들이 DHS를 사용하여 희망이 높은 사람들의 속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도 희망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까지의 국내 희망연구들은 대개 Snyder의 희망이론에 바탕을 두고 DHS를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동형과 임정섭(1997)은 DHS에 일부 문항을 추가한 후 타당화 작업을 하여 한국판 희망척도를 구성하였고, 강이영(2002)은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DHS를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타당화 연구들은 몇 가지 제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기존 타당화 연구는 체계적이고 신뢰할만한 번안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번안된 도구를 사용하는 연구에서, 모든 비교문화 연구의 타당성은 기본적으로 도구의 원래 언어버전에 대한 동질성(equivalence)에 있다. 원 척도와 동질성을 가지기 위한 번안과정은 정확한 문자 그대로의 번안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Hambleton, 1993). 이러한 동질성을 입증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역번역(back-translation) 절차인데(Brislin, 1970, 1980; Brislin, Lonner, & Thorndike, 1973), 국내의 희망척도 타당화 연구들은 이러한 번안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번안된 희망척도가 DHS에 대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말할 수 없다. 실제로, 두 연구에서 번안된 문항의 내용 대부분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 일례로, 희망척도의 원문항 중, "I meet the goals that I set for myself."라는

문항이 이동형과 임정섭(1997)의 연구에서는 “내가 세운 목표는 성취한다.”라고 변안되었고, 강이영(2002)의 연구에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설정한 목표를 이루고 있다”라고 변안되었다. 이 두 변안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스스로 목표를 세웠다’는 점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그 목표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번역 과정과 영어 원어민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DHS의 원문항과 동일하지 확신할 수 없다.

둘째, 기존 DHS 타당화 연구들은 타당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지 않았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변안문은 강이영(2002)의 연구에서 변안된 DHS를 김택호(2004)가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희망척도이다. 하지만 강이영의 타당화 작업에서는 내적 합치도 등의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만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희망척도를 엄정하게 타당화 하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는 척도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며 이는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등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한다.

이런 제한점들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에서는 DHS를 엄정한 번역, 역번역 방식 및 원어민 감수를 통해 한국어로 변안하고 이 한국판 희망척도(Korean version of the DHS : K-DH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DHS의 요인구조와 신뢰도(내적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고, 수렴타당도, 공존타당도, 변별타당도의 추정치를 구함으로써 이 도구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조사하였다. K-DHS를 타당화함으로써 국내 희망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한국 문화에서 긍정심리학의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nyder 등(1991)의 연구에서 DHS가 두 개의 하위 차원(경로사고, 주도사고)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한국 대학생/대학원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국판 DHS를 실시할 때 두 개의 하위 차원이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자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

학원생 23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²⁾ 이 중에서 문항에 완전히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12부를 제외하고 225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남자 67명(29.8%), 여자 158명(70.2%)이며 평균연령은 23.25($SD=4.87$)세였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K-DHS의 수렴타당도(자기효능감, 낙관성), 공존타당도(문제해결평가,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무망감), 변별타당도(사회적 바람직성, 자기효능감, 낙관성, 심리적 안녕감) 검증을 위하여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총 8개의 변인을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의 경우 희망과 유사하지만 차이 역시 존재하므로 수렴타당도의 추정치로 사용됨과 아울러 희망이 이들 변인을 통제하고 나서도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추가적으로 설명하는지를 알아보는 변별타당도의 추정치로도 사용되었다. 개념적으로 희망이론에서의 희망은 자기효능감, 낙관성과 유사한 면을 지니는데, 세 개념 모두 바라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고 미래와 관련되며 행동의 강력한 결정인이다(Magaletta & Oliver, 1999). 그러나 이 세 개념은 동일한 구성개념이 아니며 DHS는 자기효능감 및 낙관성과 구별되는 희망의 독자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서구에서는 이미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Magaletta와 Oliver(1999)는 긍정적인 정신건강과 관련된 있는 희망, 자기효능감, 낙관성이 모두 안녕감과 공통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고, DHS가 측정하는 희망이 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이 예측하는 것을 넘어 안녕감 예측에 유의미하고 독자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K-DHS가 측정하는 희망 역시 자기효능감 및 낙관성과 구별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Magaletta와 Oliver(1999)의 연구를 근거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희망이 유의미한 예측을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측정에 사용된 도구들에 대한 세부 설명은 다음과 같다.

2) 대학생과 대학원생 집단을 나누고 희망점수(경로사고, 주도사고)에서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경로사고, $t(223)=.49, p=.63$; 주도사고, $t(223)=-1.41, p=.16$]이 두 집단의 자료를 통합하여 제시하였음.

희망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희망척도는 Snyder 등(1991)이 개발한 희망척도(Dispositional Hope Scale : DHS)를 본 연구의 제 3저자와 그의 연구팀이 한글로 번안한 한국판 희망척도(K-DHS)이다.³⁾ 척도의 번안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한 번역에 경험이 많은 심리학 박사과정생 1명이 희망척도를 한글로 번역(translation)하였다. 둘째, 심리학 석사과정생이며 캐나다에서 학부 및 대학원을 나온 유창한 이중언어자(bilingual) 1명이 영문으로 된 척도 원문을 접하지 않은 상태로, 번안된 한글본을 영어로 재번역(back-translation) 하였다. 셋째, 영어 원어민 4명이 각자 희망척도 원문(English version)과 영어로 재번역된 척도(back-translated version)를 비교하면서 내용면에서 두 척도 간 일치도를 1점(전혀 일치하지 않음)부터 7점(완전히 일치함)까지의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고, 각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 문항에 대한 의견을 주관식으로 적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5-7점으로 평정된 문항을 우선 채택하였고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한 문항에 대해서는 다시 번역-역번역-재검토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한글판 희망척도 문항을 완성하였다(부록 참조).

K-DHS는 개인의 기질적 특성을 통해 희망을 측정하는 도구로 모두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도사고 4문항(2, 9, 10, 12번), 경로사고 4문항(1, 4, 6, 8번), 허위문항 4문항(3, 5, 7, 11번)으로 나누어진다. 4점 Likert식(1=전혀 아니다, 4=분명히 그렇다)으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DHS의 개발당시 보고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4~.88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3주 간격에서 $r=.85$, 10주 간격에서 $r=.82$ 로 보고되었다. DHS의 요인구조는 경로사고와 주도사고의 2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Babyak, Snyder, & Yoshinobu, 1993).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결과 부분에서 보고된다.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이 Bandura(1982)의 이론에 입각하여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 SES)를 홍혜영(1995)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3) K-DHS는 Snyder 등(1991) 연구팀의 일원인 미국 캔사스대 교수 Dr. Shane Lopez의 허락을 받아 번안했음을 밝힌다.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SES는 총 23문항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17문항)과 대인관련 사회적 기술 등의 요소와 관련이 있는 '사회적 자기효능감'(6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5점 Likert식(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혜영의 연구(1995)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으며, 유사개념인 희망과는 .59의 유의미한 상관이 보고되었다(Magaletta & Oliver, 1999).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낙관성 척도

낙관성 측정을 위하여 Scheier, Carver 및 Bridges(1994)가 제작한 삶의 방향성 검사-개정판(Life Orientation Test-Revised : LOT-R)을 김세희(2003)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LOT-R은 Scheier와 Carver(1985)가 개발한 삶의 방향성 검사(Life Orientation Test : LOT)를 개정한 것으로, 긍정적인 삶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를 측정한다. LOT-R은 3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3개의 부정적 문항, 4개의 허위문항으로 총 10문항이며, 5점 Likert식(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으로 평정되고,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적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OT-R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78로 보고되었고(Scheier et al., 1994), 유사개념인 희망과는 .60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Gibb, 1990).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71로 나타났다.

문제해결평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문제해결능력의 측정을 위하여 Heppener와 Petersen(1982)이 개발한 문제해결척도(Problem Solving Inventory Form B : PSI-B)를 임현우, 이동기 및 박현주(2004)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PSI-B는 개인이 자신의 일반적인 문제해결능력 및 양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측정하는 설문지로, 문제해결자신감, 접근-회피양식, 개인의 통제력 등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허위문항을 포함한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6점 Likert식(1=전적으로 동의함, 6=전혀 동의하지 않음)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로 지각함을 나타낸다.

PSI-B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9로 보고되었으며(황설영, 2005), 희망과는 -.62의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Gibb, 1990).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92로 나타났다.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Watson, Clark 및 Tellege(1988)이 제작한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 목록(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 PANAS)을 이유정(1994)이 번안하고 이현희, 김은정과 이민규(2003)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ANAS는 ‘흥미진진한’, ‘활기찬’ 등의 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10개의 형용사와 ‘괴로운’, ‘두려운’ 등의 부적 정서를 나타내는 10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일주일동안 각 정서를 얼마나 경험했는지 5점 Likert식(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많이 그렇다)으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이현희 등(2003)의 연구에서 PANAS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정적 정서가 .84, 부적 정서가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정적 정서가 .87, 부적 정서가 .87로 나타났다. Snyder 등(1991)의 연구에서 희망은 정적 정서와 .30, 부적 정서와 -.18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무망감 척도

무망감 측정을 위하여 Beck의 무망감 척도(Beck Hopelessness Scale : Beck, Weissman, Lester, & Trexler, 1974)를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및 김중술(199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를 평가하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무망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민섭 등(199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1로 보고되었고 희망과는 -.51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nyder et al., 1991).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4였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 측정을 위하여 Paulhus (1994)가 개발하고, 이동귀, 박현주, Heppner 및 Heppner

가 번안(Lee, 2003 참조)한 사회적 바람직성-인상관리 척도(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Impression Management : BIDR-IM)를 사용하였다. BIDR-IM은 BIDR의 하위요인 중 하나로,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고의적인 자기표상이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사회상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경향성이다. BIDR-IM은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 식(1= 사실이 아니다, 7= 매우 사실이다)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사회적 바람직성 경향을 나타낸다. Paulhus(1994)의 연구에서 BIDR-IM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75~.86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75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 PWBS)를 Ryff 등(Ryff, Lee, & Na, 1993; Ryff & Keyes, 1995 재인용)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것을 김명소, 김혜원 및 차경호(2001)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WBS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등의 6개의 차원을 포함하는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Likert 형식(1= 전적으로 동의함, 6= 전혀 동의하지 않음)으로 평정한다. 김중남(2004)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0이었고,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93이었다.

자료 분석

K-DHS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 하였다. 우선 K-DH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평행분석을 포함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5주 간격)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K-DHS의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희망의 유사개념인 낙관성 및 자기효능감과의 상관을 분석하였고, 공존타당도 검증을 위해 문제해결평가,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무망감과 상관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상관을 조사하고, K-DHS가 자기효능감 및 낙관성과 구별되는 고유변량을 가지는지 알아보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K-DHS의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K-DHS의 잠재요인구조를 추출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실시과정에서, 표본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Measure)가 .80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p < .001$ 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축요인추출법의 promax 회전방식(사각회전의 일종)으로 분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을 보면, 4개 문항(1, 4, 6, 8번)은 .40 이상의 부하량을 지니면서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고, 2개 문항(9, 10번)이 또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지만, 나머지 2개 문항(2, 12번)은 요인 부하량이 .35이하일 뿐 아니라 다른 요인에도 무시할 수 없는 교차 부하량(cross-loadings)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2의 스크리 도표(scree plot)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래프가 요인 수 1 다음에서 급격히 하강하고 그 이후부터는 고유값(eigenvalue)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K-DHS의 요인구조를 좀 더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의 또 다른 접근인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 PA; Horn, 1965)을 실시하였다. 평행분석은 요인 수를 결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중 하나로(Zwick & Velicer, 1986), 실제 표본과 동일한 크기의 표본, 그리고 동일한 수의 변인을 지정한 후, 무작위 데이터 행렬을 만들어 요인분석하는 것이다. 이 때 실제 데이터의 고유값이 무작위 데이터의 고유값보다 더 클 때의 요인 수를 적합한 요인수라고 결정할 수 있다.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50개의 무선적 표본($N=225$)을 만들고 이에 대해 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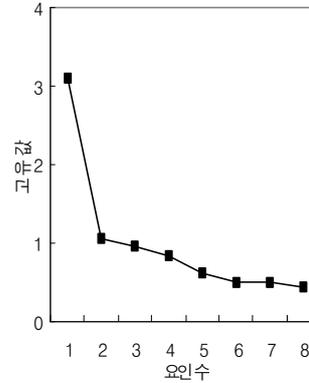


그림 2. K-DHS의 요인분석 스크리 도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수 2의 고유값부터는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평균 고유값이 실제 고유값보다 더 커지므로(즉, 측정오차의 반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합한 요인수는 1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K-DHS의 요인을 1로 지정하여, 다시 주축요인추출법을 사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인 모든 문항들이 .35 이상의 부하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K-DHS의 단일요인구조가 2요인구조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지지한다. 지금까지의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적어도 본 연구의 표본을 대상으로 K-DHS는 2요인구조보다 단일요인구조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신뢰도 검증

K-DHS의 신뢰도를 알아보기로 하자 문항-총점 상관계수와

표 1. K-DHS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 1	요인 2
1. 나는 곤경에서 벗어날 많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다.	.700	-.125
6. 나는 삶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얻을 많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다.	.687	-.019
8. 다른 사람들은 절망할 때라도 나는 내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548	.257
4. 어떤 문제라도 길은 많이 있다.	.404	-.008
2. 나는 원기 왕성하게 목표를 추구한다.	.324	.302
12. 나는 스스로 정한 목표를 따른다.	.241	.195
10. 나는 인생에서 꽤 성공적이다.	-.190	.867
9. 나는 과거 경험들로 인해 미래를 잘 준비하게 되었다.	.223	.491

표 2. K-DHS의 평행분석 결과

요인수	실제 고유값	평균 고유값	95% 급간에 해당하는 고유값
1	3.094	1.301	1.422
2	1.061	1.171	1.244
3	.959	1.089	1.147
4	.838	1.018	1.062
5	.621	.961	1.004
6	.498	.899	.946
7	.493	.825	.886
8	.436	.735	.806

로 지각하고 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며, 부정 정서 및 무망감을 덜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변별타당도 검증

K-DHS의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두 가지 과정을 거쳤다. 첫째, 희망과 관련없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바람직 성과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K-DHS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12, p>.05$).

둘째, 희망이 유사개념인 자기효능감 및 낙관성과 변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하

표 3. 요인수 1로 지정한 K-DHS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
8.	다른 사람들은 절망할 때라도 나는 내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742
9.	나는 과거 경험들로 인해 미래를 잘 준비하게 되었다.	.618
6.	나는 삶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얻을 많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다.	.615
2.	나는 원기 왕성하게 목표를 추구한다.	.566
1.	나는 끈경에서 벗어날 많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다.	.532
10.	나는 인생에서 꽤 성공적이다.	.486
12.	나는 스스로 정한 목표를 따른다.	.395
4.	어떤 문제라도 길은 많이 있다.	.373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고, 5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47~.75의 범위를 보였고, Cronbach's α 는 .77로 나타나 K-DHS가 적절한 문항 내적 일치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80으로 나타나 K-DHS의 시간적 안정성도 확인되었다.

수렴 및 공존타당도 검증

먼저, K-DHS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개념인 자기효능감과 낙관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K-DHS는 자기효능감 및 낙관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희망적도의 공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제해결평가,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 무망감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K-DHS는 비효과적 문제해결, 부정 정서, 무망감과 유의미한 부정 상관이 나타났고, 정적 정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희망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효과적인 문제해결자

고 희망, 자기효능감, 낙관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단계 1에서 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을 투입하고, 단계 2에서 희망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단계 1에서 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73%의 설명량을 보였고, 단계 2에서 희망이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3%의 유의미한 추가적 설명량을 보였다. 이것은 K-DHS가 측정하는 희망이 자기효능감 및 낙관성과 유사한 개념이며 정적인 관계이지만,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자기효능감 및 낙관성이 설명하지 못하는 고유의 변량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K-DHS의 변별타당도를 확인해준다. 이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4)

4) 연구의 가설 검증 내용은 아니지만 희망의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의 일환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희망점수의 중앙치(Median=24)를 기준으로 고휘망(high)집단과 저희망(low)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집단이 다른 종속(준기)변인들(자기효능감, 정적정서, 부정정서, 문제해결평가, 낙관성, 심리적 안녕감, 무망감 및 사회적 바람직성)에서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를 다변량 분산분석(MANOVA)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

표 4. K-DHS와 타당도 변인들 간의 상관

척도	1	2	3	4	5	6	7	8
1. 희망	-							
2. 자기효능감	.70**	-						
3. 낙관성	.49**	.45**	-					
4. 문제해결평가	-.57**	-.58**	-.36**	-				
5. 정적 정서	.51**	.48**	.30**	-.30**	-			
6. 부적 정서	-.17**	-.31**	-.28**	.18**	-.04	-		
7. 무망감	-.54**	-.54**	-.57**	.35**	-.29**	.32**	-	
8. 사회적 바람직성	.12	.10	.11	-.10	-.04	-.14*	-.18**	-

주. 문제해결평가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로 지각함을 의미
** $p < .01$, * $p < .05$

표 5.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자기효능감, 낙관성, 희망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R ²	ΔR^2
심리적 안녕감	단계 1					
	자기효능감	1.46	.09	.66***	.73	.73***
	낙관성	2.36	.29	.32***		
	단계 2					
	자기효능감	1.01	.10	.50***	.76	.03***
	낙관성	1.95	.28	.27***		
희망	2.14	.39	.26***			

*** $p < .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Snyder 등(1991)이 개발한 DHS를 다시 체계적으로 변안한 K-DHS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K-DHS의 요인구조는 선행연구들의 2요인구조와는 달리 단일요인구조로 나타났다. 따라서 K-DHS를 단일요인구조로 결정된 후, 경로사고와 주도사고를 따로 나누지 않고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내적합치도와 검

사-재검사 신뢰도에서 나타난 신뢰도 수준은 K-DHS가 내용적인 일관성과 시간적 안정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 해주었다. 또한 상관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K-DHS의 수렴 및 공존타당도,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nyder 등(1991)이 DHS를 개발하고 타당화 할 때 사용하였던 변인 중, 본 연구와 동일한 변인인 낙관성, 무망감, 문제해결능력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것과 일관되는 결과이다. 아울러, 연구결과, K-DHS는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데 있어 자기효능감 및 낙관성과 구별되는 고유변량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K-DHS의 변별타당도를 입증하는데 기여하는 결과이다.

흥미로운 점은, K-DHS의 요인구조가 Snyder 등(1991)의 연구와는 달리 단일요인구조가 나왔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체 모형은 유의미했고(Pillai's Trace=.41, $F(8, 216)=18.44$, $p < .001$), 부적정서와 사회적 바람직성을 제외한 모든 종속변인에서 고희망집단은 저희망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고희망집단은 저희망집단에 비해 높은 자기효능감, 정적 정서, 낙관성, 심리적 안녕감, 낮은 무망감과 보다 효율적인 문제해결평가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서 측정된 희망개념의 구인타당도를 지지하는 정보로 볼 수 있다.

첫째, 문화 간 차이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희망은 보편적인 구성개념이지만 그 정의는 문화마다 다르다. 따라서 모든 집단에 대해 희망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그에 동일한 접근을 하는 것은 위험하며, 희망의 다문화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Lopez, Snyder, & Pedrotti, 2003). 측정에 있어서도,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문항을 해석하는 데에 문화적 적응, 언어, 편견, 고정관념, 경제, 환경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Lopez, Ciarlelli, Coffman, Stone, & Wyatt, 2000).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 또한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한국 대학생들에게 있어 희망은 경로사고와 주도사고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인들과는 달리 그 두 사고가 뚜렷하게 분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은 희망적도의 단일요인구조에서 요인부하량이 큰 순으로 문항들을 살펴봤을 때 경로사고와 주도사고가 혼재된 순서로 나타난 것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국인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연구를 수행한 김의철과 박영신(1997), 박영신(2000)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미래의 성취를 위해 자기조절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여기서 자기조절은 노력이나 의지력 및 인내와 같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한국 사람들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강한 의지력과 신념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목표에 대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도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의지로 행동하거나 굳은 마음가짐으로 노력하는 등의 강한 자기조절 태도를 보인다(김의철, 박영신, 1998).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적극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인간관계를 통한 정서적 지원(김의철, 박영신, 1997; 원호택, 이민규, 1987)을 선호하고,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고 참는 등의 자기조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김의철, 박영신, 1997).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인 대학생/대학원생의 경우에는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목표를 추구할 때 목표에 이르는 방안을 생성해낼 수 있고, ‘어떻게’ 목표를 이루어야겠다는 경로사고보다 ‘할 수 있다’, ‘할 것이다’와 같이 강한 의지력과 목표추구에 대한 동기를 의미하는 주도사고를 더 강하게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후속연

구에서는 이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는 연구설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판 희망적도의 단일요인구조에 대한 두 번째 가능성은 통계적 검증방법의 차이이다. Snyder 등(1991)은 희망적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추출방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최근 구조방정식 전문가들(예, 홍세희, 1999)에 의하면, 주성분 분석은 잠재적 요인구조를 분석하는데 적당한 방법이 아니며 단지 많은 성분들이나 문항들을 효과적으로 요약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신 잠재요인분석, 특히 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해서는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이나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주성분분석의 문제점은 공통 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고유한 오차 변인이 요인분석에 포함됨으로써(즉, 상관행렬에 대각선이 1로 고정됨) 요인들 간의 분명한 관계를 살펴보는데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주축요인분석에서는 상관행렬의 대각선에 고유한 오차 변인의 영향을 배제한 공통분 추정치(communality estimates)가 투입되므로 요인들 간의 관계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요인추출방법으로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을 때, Snyder 등(1991)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K-DHS의 2요인 구조가 추출되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요인구조 차이는 요인분석 시 요인추출방법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표본이 제한된 표본이므로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우선 본 연구의 표본이 수도권 대학(원)생들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한국인 전체나 대학생 전체에 일반화하여 해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자료의 희망점수 평균은 4점 척도에서 2.99로, 연구대상자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를 한다면 K-DHS를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단일요인모델이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지지되는지, 또한 단일요인모델이 Snyder 등(1991)이 제안한 2요인모델보다 모델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나은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 등을 통

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희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미국인들과 어떤 뚜렷한 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여 K-DHS의 요인구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희망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이 .70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은 희망이 자기효능감과 차별되는 개념으로서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Snyder, Rand 및 Sigmon(2002)은 희망과 자기효능감 간의 개념적 차이를 설명하면서 자기효능감의 한 구성요소인 효율성 기대(efficiency expectations)는 한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특정 수행을 할 수 있다(can)는 점을 강조한 데 반해, 희망은 목표 추구하고 관련된 행위를 할 것이다(will)는 의지 차원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고, 본 연구에서 희망이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할 때 자기효능감의 설명변량을 넘어선 고유한 변량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잠정적으로 희망과 자기효능감이 적어도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K-DHS의 타당화 연구에 이용된 다양한 척도들 중 문제해결평가 척도와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경우는 희망척도 변인과정에서 준하는 절차에 따라 타당화 되었으나 나머지 척도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제한한다. 종합해볼 때,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지역분포 및 대상자 수의 제한성,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 없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상관분석에 기초한 제한적 결과로 인해 희망연구의 완전한 타당화라기 보다는 예비 타당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변안된 K-DHS에 대해 최초의 체계적인 타당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과정을 거친 K-DHS를 후속 연구들이 사용할 때 그 결과에 대해 더욱 신뢰성과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희망에 대한 문화차이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지금까지 국내의 희망연구들은 희망의 두 요인이었던 주도사고와 경로사고를 구분하여 요인별로 연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그러한 요인 구분이 한국 대학생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며 한국 대학생들에게 있어 희망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이영 (2002). 상담과정 희망척도의 개발과 적용.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08_new/index.jsp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세희 (2003). 현실적 낙관주의자와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의 심리적 특성.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 박영신 (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 결과 :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2(1), 96-126.
- 김의철, 박영신 (1998). 한국 청소년의 심리행동특성의 형성 :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김중남 (2004). 인문계 고등학생의 정신건강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택호 (2004).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신 (2000). 한국인의 성취의식과 귀인양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3), 67-98.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9(1), 1-19.
- 원호택, 이민규 (1987).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6(1), 22-32.
- 이동형, 임정섭 (1997). 한국판 희망척도와 개발 및 타당도 연구. 학생생활연구, 24, 85-108. 충남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 이유정 (1994). 성격특질이 기분의 수준 및 변화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2(4), 935-946.
- 임현우, 이동귀, 박현주 (2004). 한국판 문제해결질문지. Dr. Heppner 초청 특별 심포지움 : 상담에서의 문제

- 해결, 한국상담심리학회.
- 홍세희 (1999). 문항반응 이론과 요인분석을 이용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임상심리학회 3차 워크샵교재*. 한국 임상심리학회.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설영 (2005). 문제해결검사의 타당화 연구 :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Babyak, M. A., Snyder, C. R., & Yoshinobu, L. (1993).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Hope Scale :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7, 154-169.
- Beck, A. T., Weissman, A., Lester, D., & Trexler, L.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861-865.
- Brislin, R. W. (1970). Back-translation for cross-cultural researc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 185-216.
- Brislin, R. W. (1980). Translation and content analysis of oral and written material. In H. C. Triandis & J. W. Berry(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Vol.2, pp.389-444). Boston : Allyn & Bacon.
- Brislin, R. W., Lonner, W. J., & Thorndike, R. M. (1973). *Cross-cultural research methods*. New York : Wiley.
- Curry, L. A., & Snyder, C. R. (2000). Hope takes the field : Mind matters in athletic performances. In C. R. Snyder(Ed.), *Handbook of hope : Theory, measures, and applications*(pp.243-260). San Diego, CA : Academic.
- Gibb, J. (1990). *The Hope Scale revisited : Further validation of a measur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hope motiv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Hambleton, R. K. (1993). Translating achievement tests for use in crossnational studie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9, 57-68.
- Heppner, P. P., & Petersen, C. H. (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a personal problem-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66-75.
- Horn, J. L. (1965). A rationale and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in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2, 179-185.
- Lee, D-G. (2003). *A cluster analysis of procrastination and coping*.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Lopez, S. J., Snyder, C. R., & Pedrotti, J. (2003). Hope : Many Definition Many Measures. In S. J. Lopez & C. R. Snyder(Eds),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pp.91-107).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opez, S. J., Ciarlelli, R., Coffman, L., Stone, M., & Wyatt, L. (2000). Diagnosing for strengths : On measuring hope building blocks. In C.R. Snyder (Ed.), *Handbook of hope : Theory, measures, and applications*(pp.57-85).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 Magaletta, P. R., & Oliver, J. M. (1999). The hope construct, will, and ways : Their relations with self-efficacy, optimism, and general well-be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 539-551.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 205-220.
- Michael, S. T. (2000). Hope conquers fear : Overcoming anxiety and panic attacks. In C. R. Snyder(Ed.), *Handbook of hope : Theory, measures, and applications*(pp.355-378). San Diego, CA : Academic.
- Ong, A. D., Edwards, L. M., & Bergeman, C. S. (2006). Hope as a source of resilience in later adulthood.

-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1263-1273.
- Oxford Dictionary. <http://www.oed.com>
- Paulhus, D. L. (1994).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 : Reference manual for BIDR version 6*. Unpublished manual,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Canada.
- Rutter, M. (1994). Resilience : Some conceptual considerations. *Contemporary Pediatrics*, 11, 36-48.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1982). The self-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nyder, C. R. (1994). The psychology of hope : You can get there from here. New York : Free Press.
- Snyder, C. R. (1999). Hope, goal blocking thoughts, and test-related anxieties. *Psychological Reports*, 84, 206-208.
- Snyder, C. R. (2002). Hope Theory : Rainbows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 249-275.
- Snyder, C. R., & McCullough, M. E. (2000). A positive psychology field of dreams : "If you build it, they will com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151-160.
- Snyder, C. R., Cheavens, J., & Sympson, S. C. (1997). Hope : An individual motive for social commerce. *Group Dynamics :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 107-118.
- Snyder, C. R., Odle, C., & Hackman, J. (1999, August). *Hope as related to perceived severity and tolerance of physical pain*.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 Irving, L. M., et al. (1991). The will and the ways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s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70-585.
- Snyder, C. R., LaPointe, A. B., Crowson, J. J. Jr., & Early, S. (1998). A positive psychology field of dreams : "If you build it, they will com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151-160.
- Snyder, C. R., Rand, K. L., & Sigmon, D. R. (2002). Hope theory. In C. R. Snyder & S.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p.257-276). New York, NY : Oxford University Press.
- Snyder, C. R., Sympson, S. C., Yabasco, F. C., Borders, T. F., Babyak, M. A., & Higgins, R. L.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ate Hop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21-355.
- Snyder, C. R., Taylor, J. D., Gum, A., Rand, K. L., Kahle, K. E., & Brown, J., et al. (2001). *Hope and physical pain tolerance*.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Kansas, Lawrence.
- Taylor, S. E., & Armor, D. A. (1996). Positive illusions and coping with adversity. *Journal of Personality*, 64, 873-898.

- Thompson, L. Y., Snyder, C. R., Hoffman, L., Michael, S. T., Rosmussen, H. N., & Billings, L. S., et al. (2002). *Dispositional forgiveness of self, others, and situation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Kansas, Lawrence.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Zwick, W. R., & Velicer, W. F. (1986). Factors influencing five rul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to retain. *Psychological Bulletin*, 99, 432-442.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nyder's Dispositional Hope Scale

Yu-Hee Choi

Hee-Kyung Lee

Dong-gwi Lee

Catholic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This examined validity estimates of the Korean version of Snyder's Dispositional Hope Scale (K-DHS). Participants were 237 college and/or graduate students who completed the research packet.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favored the one-factor structure of the K-DHS in this sample over the original two-factor structure of hope (Snyder et al., 1991). Study results also suggested that the K-DHS was a reliable instrument. In addition, various estimates of validity of the K-DHS were established with the criterion measures in conceptually expected ways. For example, the K-DHS was correlated positively with measures of self-efficacy, optimism, and positive affect, but negatively with ineffective problem-solving appraisal, negative affect, and hopelessness. This study discussed potential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oncept of hope, the utility of the K-DHS, and study limitations.

Keywords: Hope; the hope scale; Reliability; Validity; Positive psychology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3월 11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8년 5월 6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5월 14일

부 록

한국판 희망척도(K-DHS)

다음의 문항들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표 해 주십시오.

문	항	분명히 아니다	거의 아니다	거의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
1.	나는 곤경에서 벗어날 많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다.	1	2	3	4
2.	나는 원기 왕성하게 목표를 추구한다.	1	2	3	4
3.	나는 대부분 피로를 느낀다.	1	2	3	4
4.	어떤 문제라도 길은 많이 있다.	1	2	3	4
5.	나는 논쟁에서 쉽게 수그러든다.	1	2	3	4
6.	나는 삶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얻을 많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다.	1	2	3	4
7.	나는 내 건강을 걱정한다.	1	2	3	4
8.	다른 사람들은 절망할 때라도 나는 내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1	2	3	4
9.	나는 과거 경험들로 인해 미래를 잘 준비하게 되었다.	1	2	3	4
10.	나는 인생에서 꽤 성공적이다.	1	2	3	4
11.	나는 늘 무엇인가를 걱정하고 있다.	1	2	3	4
12.	나는 스스로 정한 목표를 따른다.	1	2	3	4